

[보도자료] 쿠팡, 패션 전문 플랫폼 C.에비뉴 런칭

2020. 4. 1.



- 브랜드와 상품 카테고리별 탐색 기능과 추천 연관도 높여 나만을 위한 쇼핑
- 프리미엄 브랜드관으로 쿠팡에서 인증된 상품들만 모아
- 에디터's pick, 이번주 스타일 등 트렌드도 제안

2020. 4. 1 서울— 쿠팡이 패션 전문 플랫폼 C.에비뉴를 오픈한다. C.에비뉴에서는 쿠팡이 엄선한 패션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다.

C.에비뉴는 강화된 검색 기능으로 브랜드와 상품 카테고리별로 고객이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둘러 볼 수 있다. 이용자 특성에 따른 상품 추천 연관도를 높여 맞춤 쇼핑이 가능하며, C.에비뉴 배지 여부에 따른 품질인증도 확인할 수 있다. 브랜드 상품에 무료배송, 무료반품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의류 구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. 로켓와우회원은 주문 다음 날 오전7시 전까지 받아볼 수 있어, 바로 내일 입을 옷을 구매할 수 있다.

패션에 대한 브랜드별 시즌별 정보도 풍부하게 제공된다. 빈폴, 라코스테, 사만사타바사, 뉴발란스, 온앤온, 에잇세컨즈 등 유명 브랜드들의 스토리와 시즌 룩북을 담은 브랜드관을 만날 수 있으며, 매주 추천 브랜드도 소개된다. 또한, 쿠팡이 제안하는 국내 외 트렌드에서는 매주2개의 패션 키워드를 담은 필수 아이템을 제안한다. 이번 키워드는 '2020 S/S 스프링 아우터'로 인기 브랜드의 간절기 필수 아이템인 봄재킷, 바람막이 등을 엄선했다.더불어, C.에비뉴가 선정한 이번 주 패션 스타일을6개의 해시태그로 담아 선보인다. '에디터's pick'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스타일링 팁, 스타일별 상품들을 모았다.

이 밖에도 매주 핫한 상품들을 모은 '탑 베스트셀러'와 '브랜드 워크'도 운영되며, K-패션을 선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12개를 모아 새롭게 선보인 '2020 S/S 디자이너 브랜드숍'도 연결된다.

이지현 쿠팡 디렉터는 "쿠팡이 직접 엄선한 프리미엄 브랜드만을 모아 다양한 스타일의 인기 패션 아이템을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했다"며 "C.에비뉴는 쿠팡만의 혁신적인 물류와 기술이 패션을 만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